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열여섯 번째 수효

둘째 화 - 제3부

Jeff Pippenger

2026-06-18

존스의 논리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뒤따르는 두 천사와 분리될 수 없다는 존스의 논리는 더없이 견고하다. 그 세 천사와 나팔 천사들 사이의 구조적 연결에 대한 그의 규정은 절대적으로 빈틈이 없다. 그의 강조점은 의심할 바 없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위에 놓여 있었으나, 그것들을 "분리될 수 없는 것들"로 적용하는 논리는 그들에 앞서 선행한 모든 천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그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논리를 그 최종적 결론에까지 밀고 나아가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의 나팔을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는, 또한 나팔의 계열을 일곱 나팔 천사들 가운데 첫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어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 8:2, 6.

천사들의 연속은 "일곱" 나팔 천사들로 시작되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계열은 첫째 나팔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표에 대한 셋째 천사의 경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첫 네 나팔과 마지막 세 화의 나팔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Jones는 옳다. 이는 그러한 "넷과 셋"의 예언적 구조가 교회들과 인들 가운데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세 증인 위에 확립된 것은, 기꺼이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일곱이 상징으로서 또한 넷을 상징으로, 셋을 상징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성한 연결

우리가 최근에 확인해 온 바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첫째 화와 둘째 화에 관한 이슬람의 때의 예언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으며, 셋째 천사의 능력 부여는 9/11에 셋째 화가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존스의 적용이 밝혀 주는 것은, (비록 그가 나의 요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요한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 천사로부터 요한계시록 11장의 셋째 화의 나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동일한 예언적 계열 안에 있는 상징들이다. 각 천사가 대표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와 인들과 나팔이 일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일곱이라는 전체 상징 체계 안에서 넷과 셋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교회, 인, 나팔), 일곱 나팔 천사들 가운데 첫째 천사로부터 셋째 천사에 이르기까지의 천사들의 계열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열한 천사의 한

계열을 확인해 준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심판의 시작을 선포한 밀러파의 경고의 기별과, 그 이후 심판의 마침을 선포하고 있는 십사만 사천의 경고의 기별을 대표한다.

일곱 나팔은 태양 송배를 강요한 나라들 위에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용하신 권세들을 나타낸다.

처음 네 나팔은 427년까지 서방 로마가 점진적으로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1449년부터 1453년에 이르기까지 동로마의 멸망을 밝혀 준다.

마지막 세 나팔은 세 화의 이슬람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처음에 그 운동에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운동에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다시 내려오신다.

제칠 나팔은 대속죄일의 원형인 심판이 시작될 때, 곧 1844년 10월 22일에 울리기 시작하였다. 희년의 나팔은 대속죄일에 불려야 하였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는 두 나팔, 곧 희년의 나팔과 제칠 나팔이 울려진다.

너는 일곱째 달 열째 날에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하되, 곧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게 할지니라.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도 거두지 말지니라. 레위기 25:9-11.

레위기의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일곱 때" 동안 흠어질 것임을 밝히는 문맥은,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 제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년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네 밭에 파종하고 여섯 해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며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으로 쉬는 안식년, 곧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되게 할지니 너는 네 밭에 파종하지 말고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수확 후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도 따지 말라. 이는 그 땅의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네 타국인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에게 그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곧 일곱 번의 칠 년이라. 그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네게 사십구 년이 되리라. 레위기 25:2-8.

밀러는 26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한 안식년의 쉼을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인식했을 때, 하루가 일 년을 나타낸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한 해가 삼백육십 일이며, 삼백육십의 일곱 배가 언약을 범한 데 대한 이천오백이십 년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그가 발견한 최초의 예언적 진리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밀러의 사역을 통하여 세우신 기초를 이루는 진리들의 기초이다. 희년의 나팔은 구원과 자유의

선포이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의 이슬람이다.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나는 날들에,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마쳐지리니, 그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바와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10:7.

이슬람의 일곱째 나팔은 외적인 예언적 진리이며, 희년의 나팔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곧 죄로부터의 구원—의 내적인 예언적 진리인데, Sister White에 따르면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 셋째 천사이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십사만 사천의 인성과 결합시키실 때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셋째 화로 표상되는 경고의 나팔 기별, 또한 셋째 천사의 경고를 선포할 것이다. 셋째 화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지 않은 인격체이신 그 천사가 손에 기별을 가지고 내려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다.

우리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때에 관한 예언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고, 셋째 화에 관한 예언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나팔들을 '일요일 준수 강요에 대한 응답으로 로마 위에 내려진 심판들'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섭리적 심판들, 특히 마지막 세 화의 나팔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경고 기별과 일치하며 평행을 이룬다.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는 두 화와 두 천사가, 그리고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는 셋째 화와 셋째 천사가 그러하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초기 역사에서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기별이 첫째 화와 둘째 화에 대한 이슬람의 성취를 통하여 능력을 부여받았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역사에서는 심판의 종결을 선포하는 기별이 셋째 화에 대한 이슬람의 성취를 통하여 능력을 부여받았다.

시작과 끝에서의 능력 부여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8장의 천사로 표상되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인물이 아닌 분"이었다. 이슬람의 외적 기별과 심판의 내적 기별은 외적 셋째 화의 나팔이며, 심판의 내적 기별은 셋째 천사의 나팔이다. 이슬람의 외적 나팔은 이천오백이십 년의 예언이며, 셋째 천사의 내적 나팔은 이천삼백 년이다. 이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르러 울렸고, 또 둘 다 산 자들의 심판이 시작될 때 다시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이슬람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서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천사는 또한 이슬람에 관한 한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오는 일을 예표하였다. 321년에 있었던 일요일 법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어 538년에 다시 있었던 그 반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처음 여섯 나팔로 표상되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반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일곱째 나팔로 표상되는데, 그것은 셋째 화이며 또한 셋째 천사이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심판의 경고 기별과 9/11에 있었던 산 자의 심판의 경고 기별은 둘 다 존스가 제시한 순서 가운데 일곱째 천사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았다. 8장과 9장에는 여섯 나팔 천사들이 나오고, 이어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지 않은 위격이신 천사가 내려온다. 그는 천사들의 순서 가운데 일곱째이며, 그 뒤를 이어 11장에서는 셋째 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1844년에 나팔을 불기 시작한 일곱째 나팔이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의 아홉째,

열째, 열한째 천사들로 이어지는 천사들의 계열에서는 여덟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일곱 나팔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처음 네 나팔의 심판은,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첫 번째 일요일 법 이후 서방 로마가 점진적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며, 330년에 그가 제국을 동서로 분할한 때에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가 그 입법 의회에서 사람들의 종교적 특권에 관하여 그들의 양심을 속박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며,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하여 압제적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땅에서 사실상 무효가 될 것이며,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멸망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8년 12월 18일.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파멸을 초래한다는 원칙은, 476년에 서방 로마를 종결에 이르게 한 첫 네 나팔을 기점으로 콘스탄티누스의 나라에 임하였다. 동로마는 1453년에 그 종말에 이르렀으나, 예언적으로는 1449년 7월 27일에 이미 그 국가적 주권을 상실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전복된 바벨론과는 달리, 로마는 서방과 동방 모두 점진적으로 그 종말에 이르렀다. 476년까지 첫 네 나팔 아래에서 이루어진 서방 로마의 몰락은, 네 나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몰락을 표상하는데, 이는 한 차원에서는 1798년에 시작하여 일요일 법으로 끝나는 미국의 네 세대를 의미한다. 이 네 세대는 재림교의 네 세대와 서로 평행을 이루며, 그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2장의 처음 네 교회와, 에스겔 8장의 점증하는 네 가지 가증한 일들과, 요엘서의 메뚜기 네 차례의 물결과도 평행을 이룬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무서운 심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릴 때에야, 하물며 어떠하겠느냐? 에스겔 14:21.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동로마를 무너뜨렸으며, 서방 로마와의 예언적 관계에서 동방 로마는 국가를 나타낸다. 서방 로마는 교회를 나타낸다. 또한 서방 로마는 미국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서방 로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미국도 먼저 정복된다.

“종교적 자유의 땅인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게 될 때,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 본을 따르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18.

처음 네 나팔은 미국 역사의 네 세대를 대표하며, 미국이 무너질 때 다니엘 11장 41절의 영화로운 땅이 막 함락된 것이고, 다음 장애물은 세상 나머지 나라들의 상징인 애굽이다. 그때 열 왕인 국제연합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잠시 동안—한 시간” 자기들의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이것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그가 자기 왕국의 절반을 약속할 때에 일어난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바로 그 시간에 글씨가 벽의 회반죽 위에 나타나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다. 그 한 시간은 일요일 법에서 이르러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된다. 일곱째 왕국은 1453년에 무너져 내린 콘스탄티노플 성벽의 파괴로 예표된 바와 같이 정복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으로부터, 1449년으로 예표된 때에서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에 이르기까지는 상징적 4년이다. 교황권은 1798년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교황권은 마지막 때인 1798년에 무너졌다. 그리고 남방 왕은 마지막 때인 1989년에 무너졌다. 미국은 41절에서 무너지고, 애굽은 42절에서 무너지며, 교황권은 45절에서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몰락에 이른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우리는 단지 외적인 세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모든 권세와 장엄을 지녔던 바벨론, 곧 그 이후로 우리 세상이 다시는 보지 못한 그러한 권세와 장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보였던 그것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풀의 꽃’처럼 그것은 멸망하였다. 야고보서 1:10. 메대-바사 제국과 헬라와 로마의 제국들도 그와 같이 멸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사라진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만이 견딜 수 있다. 그분의 원칙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확고한 것들이다.” 선지자와 왕, 548.

41절에 나오는 미국(거짓 선지자)의 몰락은 1449년에 의해 예표되었고, 42절에 나오는 애굽(용)의 몰락은 1453년에 의해 예표되었으며, 교황권(짐승)은 1798년에 의해 예표된 바와 같이 도와줄 자가 없이 그 종말에 이른다. 거짓 선지자와 용은 나팔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고, 짐승은 용의 세력에 의해 무너진다.

숫자 넷은 한 왕국의 해체를 상징한다. 알렉산더의 왕국은 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애굽은 사대(四代) 만에 홍해에서 멸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에스겔 8장의 넷째 가증한 일에서 해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다. 땅의 짐승 안에 있는 프로테스탄트주의와 공화주의의 네 세대는 1798년에 시작되어, 두 뿔 모두에게 임박한 일요일 법으로 끝난다.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의 네 가지 중한 심판은 미국에 대한 네 가지 심판을 예시하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에 대한 그 네 가지 심판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나라의 절반을 교황권에게 주기로 동의하는 1449년부터 1453년까지의 네 해를 예표하는데, 그 관계 위에서 두로의 음녀가 통치한다.

1449년부터 1453년까지의 네 해는 일요일 법령에서 일곱째 왕국의 멸망을 표상하며, 또한 일요일 법령부터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때까지 여덟째 왕국의 멸망의 기간을 표상한다. 세상이며 또한 교황권에게 주어진 용인 애굽의 정복은, 1449년부터 1453년까지의 네 해로 상징되는 기간의 시작 부분에 있는 하나의 프랙털이다. 이것은 일요일 법령에서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가리키며, 이어서 미가엘이 일어설 때 다시 한번 그러하다. 미가엘이 일어설 때, 영감의 말씀에 따라 네 천사는 완전히 놓이게 된다.

“나는 네 천사가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일곱 마지막 재앙이 이를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36.

알렉산더의 왕국의 네 분할, 서방 로마에 내린 네 나팔, 동방 로마에 풀려난 네 바람, 예루살렘 위에 내린 네 가지 중한 심판, 교황권이 도와줄 자가 없이 그 종말에 이를 때 풀려나는 네 바람. 이러한 예언적 상징들이 제시된 바에 따라, 우리는 둘째 화를 임박한 일요일 법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피렌체 공의회

1439년 피렌체 공의회(피렌체 연합이라고도 불림)에서 동방 정교회의 대표자들(비잔틴 황제 요한네스 8세 팔레올로고스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이끔)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공식적인 연합 칙령에 서명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교황을 전체 교회의 수장(최고 권위)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음이니, 그가 곧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23.

니케아 신경

황제와 총대주교는 니케아 신경에 덧붙여진 “필리오케 조항(Filioque clause)”, 곧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였다. 니케아 신경은 가톨릭 신앙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신앙 진술 가운데 하나이다. 니케아 신경은 가톨릭의 핵심 신앙을 공식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이름의 한 사제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창조되었으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침으로써 중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그 공의회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확증하였다. 그 신경은 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확장되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니케아 신경이 첫 번째 콘스탄티누스의 역사 속에서 확립되었으며, 그것이 동방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열한 번째 콘스탄티누스, 곧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였던 대제 콘스탄티누스는 성경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제시된다. 그는 동방 제국의 시작에서의 통치자이며, 그러므로 동방 제국의 종말에서의 통치자를 예표한다. 니케아 신경이 시작과 종말의 역사 양편에 모두 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의 원칙을 이해하는 예언 연구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381년에 니케아 신경은 연옥 교리와 성찬 교리로 갱신되었으며, 성찬에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라틴 관행이었다. 381년의 이 신경은 또한 원죄와 내세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핵심 구절로 끝맺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사도좌와 로마 교황이 온 세계에 대한 수위권을 지니며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임을 규정한다.”

피렌체 공의회에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함락되기 14년 전인 1439년 7월 6일에 또 하나의 수정된 판본이 서명되었다. 그 연합은 중대한 정치적 압박 아래에서 서명되었다. 비잔틴 제국은 진격하는 오스만 세력에 맞서기 위해 서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스 대표들이 귀국했을 때, 그 합의는 동방의 성직자들, 수도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대다수에 의해 강력히 거부되었다. 이에 서명했던 주교들 가운데 대부분도 나중에 그 지지를 철회하였다. 그 연합은 끝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어지는 세월 동안 동방 정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무렵에는, 그 연합은 이미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역사가들은 이를 흔히 심대한 신학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저항으로 인해 실패한 정치적 연합으로 묘사한다.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다니엘 11장 24절의 360년이 “한 때”로 표상되어 끝나는 330년보다 5년 앞서 표시되어 있다.

그는 평안히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도 하지 못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못하였던 일을 행할 것이며,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줄 것이요, 또한 한동안은 견고한 요새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계책을 꾸밀 것이다. 다니엘 11:24.

주전 31년과 330년은 둘 다 다니엘 11장 27절과 29절의 “정한 때”를 가리킨다.

이 두 왕의 마음은 악을 행하려는 데 있을 것이요, 그들은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끝이 정한 때에 이를 것임이라. ...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와 남방으로 나아갈 것이나, 이번에는 이전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나중과도 같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1:27, 29.

동로마의 예언적 계보의 시작(330)과 끝(1449-1453)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로 표상된다. 비잔틴 제국이라 불리는 동로마의 예언적 계보의 알파와 오메가는, 주전 31년 악티움 전투로부터 330년까지 최고 권세로 통치한 360년의 제정 로마의 종말과 연결되며, 이어서 1453년에 이른다. 주전 31년 악티움 전투 이전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였으나 형통하지 못하였다. 330년 이전인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채택되었다. 1453년 이전에는 바로 그 동일한 니케아 신경의 갱신된 판이 채택되었다. 주전 31년 이전에는 두 정치적 인물이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였다. 325년에는 영적인 거짓말들이 한 상에서 말해졌다. 그 두 증인은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거짓과 영적 거짓을 지목한다. 그 갱신된 니케아 신경은 「연합 칙령」이라 불렸다.

“한 상에 앉은 거짓말들”의 첫 번째 이정표는 기원전 31년 이전에 있었으며, 이교 로마의 두 정치적 파벌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 거짓말들의 정한 때는 기원전 31년이었고, 그것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맹에 맞선 로마의 상징인 아우구스투스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거짓말들의 집합은 325년이었고, 그 정한 때는 330년이였다. 세 번째 거짓말들의 집합은 1439년에 있었고, 그 정한 때는 1449-1453년이였다. 1439년에 그 상에 앉은 자들은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를 대표하였으며, 동방 로마는 종교적 논변에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기원전 31년, 그 뒤를 이은 330년, 그리고 이어지는 1453년은 로마의 선에 대한 삼중 적용을 나타낸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이 지닌 정치적 위협은 325년에 있었던 아리우스주의 이단의 영적 위협을 예표하였고, 그것은 다시 1439년에 있었던 이슬람계 터키인들의 정치적·종교적 위협을 예표하였다.

니케아 신경의 교리들은 거짓이며 그 안에는 진리가 전혀 없다. 1439년 7월 6일 피렌체 공의회에서 서명된 문서는 「연합 칙령」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동일한 거짓들과 그보다 더한 것들을 나타내었다. 1439년에 사절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분노와 배신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다음과 같은 말이 널리 퍼졌다. “교황의 주교관보다는 차라리 터키인의 터번이 낫다.”

그 연합은 주로 비잔틴 황제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기 위하여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군사적 원조가 거의 오지 않거나 전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 연합에 대한 지지는 사라졌다. 1450-1451년에 여러 동방 시노드들이 그 연합을 거부하였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뒤에는 그 연합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피렌체 연합 교령의 최종적 귀결은 동방 정교회에 의해 실패하고 거부된 공의회로 간주된다.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유효한 보편 공의회로 간주한다.

우리는 둘째 회의의 예언적 특성들이 셋째 회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첫째 회의 백오십 년 예언은 1299년 7월 27일에 시작되어 1449년 7월 27일에 끝났다.

1449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라이올로고스는 1404년에 태어나 1449년 1월부터 1453년 5월 29일까지 통치하였다. 그는 1,100년 이상 지속되었던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다. 그는 1453년 오스만의 포위 동안, 8만 명이 넘는 메흐메드 2세의 군대에 맞서 약 7,000명에서 8,000명에 불과한 수비병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용감히 방어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마침내 함락된 1453년 5월 29일, 성벽 위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시신은 끝내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였다(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제국의 마지막 직접적 계승체).

그는 그리스 역사와 정교회 전승에서 영웅적 인물로 기억되며, 전설 속에서는 흔히 "대리석 황제"로 불린다(언젠가 그가 돌아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구원하리라는 믿음).

요한네스 8세 팔레올로고스(1392-1448)는 1425년부터 1448년까지 재위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비잔틴 황제였다. 그는 황제 마누엘 2세 팔레올로고스의 장남이었으며, 콘스탄티노스 11세의 형이었다. 요한네스 8세는 자신의 재위 기간 대부분을, 죽어 가는 비잔틴 제국을 오스만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보냈다. 1439년 그는 몸소 이탈리아로 가서 피렌체 공의회를 주재하였고, 그곳에서 그와 동방 정교회 대표단은 일시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재통합에 동의하고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받아들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역시 니케아 공의회를 주재한 바 있다. 요한네스 8세는 교황권과의 이러한 연합이 튀르크에 맞서는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가져오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연합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와서는 매우 큰 반대를 받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요한네스 8세는 1448년에(자연사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1453년에 함락되기 불과 5년 전이었다. 그 뒤 그의 동생 콘스탄티노스 11세가 황제가 되었고, 도시를 방어하다가 죽었다.

요한 8세가 1448년에 죽자, 그의 형제 콘스탄티노스 11세가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1448년에 이르러 비잔틴 제국은 미미한 속국에 불과하였고, 오스만은 콘스탄티노플의 왕좌에 누가 앉을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449년 7월 27일,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 비잔틴 황제 요한 8세 팔라이올로고스는 그보다 앞선 1448년에 이미 죽었다. 그의 형제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라이올로고스(마지막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스 11세는 정식으로 즉위하기에 앞서 오스만 술탄(무라드 2세)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통치할 허락을 요청하였다. 술탄은 그 허락을 내렸고, 그제서야 콘스탄티노스 11세는 정식으로 대관을 받고 황제로 인정되었다. 이 행위는 비잔틴의 독립을 자발적으로 넘겨준 것으로 여겨졌다. 비잔틴 황제가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에 의해서만 통치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불과 4년 뒤인 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에게 함락되었다.

1449년 7월 27일로부터 391년 15일 후인 1840년 8월 11일, 터키는 네 유럽 열강에 복종함으로써 이집트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였고, 이로써 한 시간과 하루와 한 달과 일 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제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첫째 화와 둘째 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논리를 확립하였다.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의 상징으로서 셋째 천사의 운동을 나타내며, 윌리엄 밀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운동을 나타낸다. 이 두 운동은 모두 "열쇠"와 관련되어 있다.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2.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8, 19.

우리는 다음 글에서 니느웨의 전투를, 무저갱을 여는 "열쇠"일 뿐 아니라 다니엘 11장 전체의 증언을 완전한 질서 속에 정렬시키는 예언적 열쇠로서 다루고자 한다. 밀러의 꿈에서 작은 궤에 달려 있던 "열쇠"는 성경 연구에 대한 밀러의 방법이었다. 밀러 운동의 역사에 대한 증거 본문 제시와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의 "줄에 줄을 더함"을 결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열쇠로 하여금 40절의 외적인 기별에 담긴 감추어진 역사를 열어 질서 있게 정렬하게 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우리의 고찰을 계속할 것이다.

"선지자에게는 바퀴 안의 바퀴와 그것들과 연결된 생물들의 형상이 모두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한하신 지혜의 손이 그 바퀴들 가운데 나타나며, 그 역사(役事)의 결과는 완전한 질서이다. 모든 바퀴는 다른 모든 바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인다." 『목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214.